



新羅 下代와 崔致遠

저자 (Authors)	최광식
출처 (Source)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38 , 2017.6, 1-30 (30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5510
APA Style	최광식 (2017). 新羅 下代와 崔致遠.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38, 1-3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7 10:4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 下代와 崔致遠*

최 광 식*

<目 次>

- | | |
|--------------------------------|--------------------|
| I. 머 리 말 | V. 귀국후 찬술한 자료에 나타난 |
| II. 『三國史記』에 보이는 신라의 下代 | 下代の 사회상 |
| III. 『三國遺事』에 보이는 신라의 下代 | VI. 맺 음 말 |
| IV. 『桂苑筆耕集』에 보이는 唐과 新羅의
사회상 | |

* 이 논문은 제 44회 신라문화제 제 38회 신라문화학술회의에서 기초 강연로 발표된 논문임을 밝혀둠

*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표 논저: 2014, 「한국 岩刻畫의 기원과 중국의 동북·산동 지역」, 『白山學報』100, 白山學會; 2015, 「桓雄天王과 檀君王儉에 대한 역사민속학적 고찰」, 『韓國史學報』 60, 高麗史學會; 2016, 「新羅 花郎徒와 風流道」, 『史叢』 87, 高麗大學校 歷史研究所; 「『계원필경집』의 내용과 동아시아사적 가치」, 『韓國史學報』 63, 高麗史學會; 「한국고대사의 대중화와 대중문화화」, 『韓國古代史研究』 84, 한국고대사학회; 「『삼국유사』의 문화사적 가치」, 『新羅文化』 4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외 다수.

I.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三國史記』는 신라의 역사를 上代(박혁거세~진덕여왕), 中代(태종무열왕~혜공왕), 下代(선덕왕~경순왕)로 나누어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왕통에 따른 시기구분으로서 대부분의 신라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 시기 구분에 따라 신라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한편 『三國遺事』는 신라의 역사를 上古(박혁거세~지증왕), 中古(법흥왕~진덕여왕), 下古(태종무열왕)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상고 시기는 聖骨, 하고 시기는 眞骨이라고 하여, 왕통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지만 『삼국사기』와는 다른 시기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신라 하대를 살았던 崔致遠은 과연 이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최치원은 憲安王대에 태어나 景文王대에 신라에 유학을 하고, 憲康王대에 賓貢科에 급제를 하고 高駢의 종사관을 지내다가 귀국을 하여, 定康王대와 眞聖女王대에 신라에서 관직생활을 하다가, 讓位表를 올리고 孝恭王이 즉위하고 나서는 관직에서 물러나 저술활동을 하다가, 神德王대 이후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최치원은 하대의 인물로 당대의 사회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나라에서 고변의 종사관을 지내며 지었던 공문서와 사문서를 정리한 『桂苑筆耕集』을 통하여 在唐時 신라와 당나라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리고 신라로 귀국한 이후에 찬술한 자료 들이 남아있으므로 이들을 통해 신라 하대의 사회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三國史記』에 보이는 신라의 下代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國人들이 스스로 시조로부터 경순왕대까지를 세부분으로 나누어, 진덕왕대까지 28왕의 시대를 상대, 무열왕으로부터 혜공왕대까지의 8왕의 시대를 중대, 선덕왕으로부터 경순왕대까지 20왕의 시대를 하대라고 이른다고 하였다.¹⁾

한편 『삼국사기』 진덕여왕조²⁾에 국인들이 시조혁거세왕으로부터 진덕왕까지 28왕을 성골이라 하고, 무열왕부터 말왕까지를 진골이라고 한 것을 보면 구분의 기준이 왕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는 성골 출신의 임금, 중대와 하대는 진골 출신의 임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삼국사기』 연표를 보면 진덕왕이 薨逝하고 태종무열왕이 즉위하였다고 하면서 이하는 진골왕이라고 되어 있으며, 혜공왕이 흥서하고 선덕왕이 즉위하였다고 하였으나 중대에서 하대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구성을 보면 신라본기 권 5에 선덕여왕, 진덕여왕, 태종왕이 함께 입전되어 있어서, 상대와 중대의 구분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신라본기 권 9를 보면 효성왕, 경덕왕, 혜공왕, 선덕왕이 함께 입전되어 있어서 중대와 하대의 구분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상대와 중대 및 하대를 매우 중요한 시기 구분으로 하여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대

1) 『三國史記』 12, 新羅本紀 12, 敬順王條.

2) 『三國史記』 5, 新羅本紀 5, 眞德女王條.

는 왕권보다는 귀족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시기로 보고 있으며, 중대는 왕권이 귀족권을 압도하여 심지어 전제왕권의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하대는 해공왕대의 96각간의 난을 계기로 선덕왕 이후 귀족연립정권으로 인식하고, 신라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상징하고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³⁾

해공왕 말년의 정변을 통해 등극한 선덕왕대부터 신라 하대 약 150여년 동안을 신라의 역사에 있어서 격동의 시대 혹은 전환의 시대로 파악하고 있다. 신라 하대는 단순하게 왕통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체제가 동요하고, 신라가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하대 정치사 연구의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의 왕위계승이나 말기의 왕조의 쇠퇴만을 부각시키는 시각에서 벗어나 155년간의 사회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계기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⁴⁾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해공왕대(765-779)에 96각간의 난이 발생하였는데 중대에는 빈번하지 않았던 天變災異 현상이 연달아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3년 6월에 지진이 있었다.

4년 6월에 왕경에 우레가 있고 우박이 와서 초목을 해치고, 또 큰 별이 황룡사 남쪽에 떨어졌으며, 뇌성과 같은 지진이 있고, 샘과 우물이 모두 마르고 범이 궁중에 들어온 일까지 있었다.

5년 5월에 누리와 가뭄이 있었다. 11월에 눈이 오지 않았다.

6년 11월에 왕경에 지진이 있었다.

3) 이기백, 1957, 「신라 해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사회과학』 2, 한국 사회과학연구회.

4) 권영오, 2009, 「신라 하대 정치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신라사학보』 17, 신라사학회.

13년 3월에 왕경에 지진이 있었고, 4월에 또 지진이 있었다.

15년 3월에 왕경에 지진이 있어 민가가 무너지고 죽은 자가 100여명이었다.”⁵⁾

왕이 즉위하고 나서 초기에는 거의 매년 지진과 가뭄이 있었으며, 누리의 피해도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더구나 13년과 15년에는 지진이 또한 발생하였으며, 15년의 지진에는 민가가 무너지고, 100여명이 사망하였다고 하니 매우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왕

16년 기사를 보면 이러한 천재지변의 이유로 반란이 또 일어나고 결국 왕이 바뀌게 되었다.

“16년 정월에 누런 안개가 끼고, 2월에 흠비가 왔다. 왕은 어려서 즉위하여 장성함에 性色에 빠지고 無時로 遊幸하여 기강이 문란하고 災異가 계속 나타나고, 인심이 이반하고 사직이 불안하였으므로 이찬 김지정이 반하여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웠다.”⁶⁾

16년에도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마침내 왕이 바뀌게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천변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천변재이 현상으로 농업 생산력이 저하되고, 왕도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왕의 덕치가 문제가 되어 민심이 흉흉하니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결국 새로운 임금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5) 三年 夏四月 地塵, 四年 六月 京都地震 傷草木 大星隕皇龍寺 地震聲如雷 泉井皆渴 虎入宮中, 五年 夏五月 蝗旱 冬十一月 無雪, 十三年 春三月 京都地震 夏四月 又震, 十五年 春三月 京都地震 壞民屋 死者百餘人(『三國史記』 9, 新羅本紀 9, 惠恭王條)

6) 十六年 春正月 黃霧 二月 雨土 王幼少即位 及壯淫于聲色 巡遊不度 紀綱紊亂 災異屢見 人心反側 社稷杌隍 伊淪金志貞叛 聚衆圍犯宮闕(『三國史記』 9, 新羅本紀 9, 惠恭王 十六年條)

그런데 이러한 천변재이 기사는 중대에 비해 하대에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성왕대(785-798)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년 4월에 우박이 내려 뽕나무와 보리가 해를 입었다.

7월에 가뭄이 있었다.

3년 2월에 왕경에 지진이 있었다. 7월에 누리가 곡식을 해쳤다.

4년 가을에 나라 서쪽에 가뭄과 누리가 있고 도적이 많아, 왕이 사자를 파견하여 백성을 안무케 하였다.

9년 8월에 태풍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곡식이 쓰러졌다.

10년 2월에 지진이 있었다.

11년 4월에 가뭄이 있었다. 8월에 서리가 내려 곡물을 해쳤다.

13년 9월 나라 동쪽에 누리가 나서 곡물을 해치고, 또 큰물이 나서 산이 무너졌다. 시중 지원을 면직하고 아찬 김삼조를 시중으로 삼았다.

14년 6월에 가뭄이 있었다. 12월 29일에 왕이 돌아가시니 시호를 원성이라 하고 유명으로 영구를 봉덕사 남쪽에서 화장을 하였다.”⁷⁾

원성왕 재위 중 거의 매년 지진과 가뭄, 그리고 태풍 및 홍수가 나서 시중을 새로 임명하여 곤경을 모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말년의 가뭄 이후 왕이 돌아갔으니 천재지변이 왕의 사망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은 9세기 애장왕대(800-808)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7) 二年 夏四月 國東雨雹 桑麥皆傷, 秋七月 旱, 三年 春二月 京都地震 秋七月 蝗害穀, 四년秋 國西旱蝗 多盜賊 王發使按撫之, 九年 秋八月 大風折木偃禾, 十年 春二月 地震, 十一年 夏四月 旱 秋八月 隕霜害穀, 十三年 秋九月 國東蝗害穀 大水山崩 侍中智原免 阿滄金三朝爲侍中 十四年 夏四月 旱 冬十二月二十九日 王薨 諡曰元聖 以遺命 舉 柩燒於奉德寺南(『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元聖王條)

“2년 10월에 큰 추위가 있어 송죽이 다 죽었다.

3년 7월에 지진이 있었다.

4년 10월에 지진이 있었다.

6년 11월에 지진이 있었다.

8년 8월에 큰 눈이 내렸다.

10년 7월에 크게 가물었다. 왕의 숙부 언승이 그 아우 제웅과 더불어 군사를 이끌고 궁중에 들어와 난을 일으키고 왕을 시해하였으며, 왕제 체명도 왕을 시위하다가 해를 입었다. 왕을 추시하여 애장이라 하였다.”⁸⁾

애장왕대도 큰 추위, 큰 눈 및 계속적인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가뭄이 발생하고 나서 왕이 시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천변재이 현상은 다음왕인 헌덕왕대(809-825)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6년 5월에 나라 서쪽지방에 홍수가 났다.

7년 5월에 눈이 왔다.

9년 5월에 비가 오지 않아 두루 산천에 기도하였더니 7월에 가서야 비가 왔다.

12년 춘하에 가물더니 겨울에 기근이 있었다.

13년 봄에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자손을 팔아 자활하는 자가 있었다.

15년 7월에 눈이 왔다.”⁹⁾

8) 二年 冬十月 大寒 松竹皆死, 三年 秋七月 地震, 四年 冬十月 地震 六年 冬十一月 地震, 八年 秋八月 大雪, 十年 秋七月 大旱 王叔父彦昇與弟伊浪悌邕 將兵入內 作亂弑王 王弟體明 侍衛王併害之 秋謚王爲哀莊(『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哀莊王條)

9) 六年 夏五月 國西大水, 七年 夏五月 下雪, 九年 夏五月 不雨 遍祈山川 至七月乃雨, 十二年 春夏 旱 冬飢, 十五年 秋七月 雪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憲德王條)

홍수와 가뭄이 이어지고 그리고 15년 7월 여름눈이 오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난 뒤, 동왕 17년에 김현창의 아들 김범문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은 진압되었으나 헌덕왕은 다음해 사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흥덕왕대(826-835)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년 5월에 서리가 내리고 8월에 태백이 낮에 나타나더니 왕 경에 큰 비가 내렸다. 시중 영공이 물러났다.

6년 정월에 지진이 있었다. 시중 우정을 면직하고, 이찬 윤분을 시중으로 삼았다.

7년 춘하에 가뭄으로 땅이 붉게 되므로 왕이 정전을 피하고 상선을 감하고 중외의 죄수들을 사면하였다.”¹⁰⁾

이러한 천변지이 현상에 대해 왕이 정전을 피하고 상선을 감하고 죄수들을 풀어주는 등 겸허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 이후에도 하대에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들을 제외하고는 천변지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상 기후로 인한 천변지이 현상이 신라 하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Ⅲ. 『三國遺事』에 보이는 신라의 下代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보다 150여년 뒤에 편찬된 『삼국유사』는 신라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지만 『삼국사

10) 二年 夏五月 降霜 秋八月 太白晝見 京都 大旱 侍中永恭退, 六年 春正月 地震 侍中祐徵免 伊滄允芬爲侍中, 七年 春夏 赤地 王避正殿 減常膳赦內外獄囚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興德王條)

기』와 달리 上古(박혁거세왕~지증왕), 中古(법흥왕~진덕왕), 下古(무열왕~경순왕)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삼국사기』에서 上代라고 하는 시기를 보다 세분하여 上古 시기와 中古 시기로 나누고, 반면에 『삼국사기』의 中代와 下代를 합쳐서 下古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삼국유사』 왕력편을 보면 지증왕조 다음에 已上은 上古이며, 已下는 中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진덕여왕조 다음에 已上은 中古 聖骨이며, 已下는 하고 眞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¹⁾ 중고 시기와 하고 시기의 구분은 성골과 진골의 왕통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고기와 중고기의 구분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어있지 않은데 아마도 법흥왕대의 이차돈 설화를 계기로 불교 진흥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삼국유사』 기이편 2에서는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편목을 보면 권 1은 왕력편 제 1과 기이 제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라의 경우 신라시조 혁거세왕으로부터 태종무열왕까지 편성되어 있어서 상고기와 중고기의 구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기이편에 智哲老王조는 편성되어 있지만 법흥왕대 이차돈 순교설화는 권 3 흥법편에 原宗興法 厭觸滅身조로 편성되어 있다. 한편 『삼국유사』 권 2는 文虎王 法敏으로부터 金傳大王까지 입전되어 있어서 대체로 하고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권 2의 내용을 보면 문호왕 법민조, 만파식적, 효소왕대 죽지랑조, 성덕왕조, 수로부인조,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 혜공왕조로 편성되어 있는 바 『삼국사기』에서 구분하는 중대에 해당

11) 『三國遺事』 권 1, 王曆 1.

한다. 『삼국사기』의 하대에 해당하는 시기의 내용은 원성대왕조, 조설조, 흥덕왕 앵무조, 신무대왕 염장 궁파조, 제 48대 경문대왕조, 처용랑 망해사조, 진성여왕 거타지조, 효공왕조, 경명왕조, 경애왕조, 김부대왕조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대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혜공왕조는 편성되어 있지만 하대의 기점인 선덕왕조는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뒤로 남부여 전백제조, 무왕조, 후백제 견훤조, 가락국기조로 편성되어 있다. 사실 남부여 전백제조와 가락국기조는 시기적으로 볼 때 권1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권2의 부록 형식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조목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元聖大王조에서는 원성대왕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만파식적을 얻은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원성왕의 능은 토함산 서쪽 마을의 鵠寺(崇福寺)에 있고, 최치원이 지은 비문이 이곳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¹²⁾

다음에 편성되어 있는 무왕조에는 자연변이 현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 40대 애장왕 말년 무자(808) 8월 15일에 눈이 내렸다. 제 41대 선덕왕 원화13년 무술(818) 3월 14일에 많은 눈이 내렸다.(어떤 책에는 병인이라고 했으나 이는 잘못이다. 원화는 15년에 끝났으므로 병인이 없다) 제 46대 문성왕 기미(839) 5월 19일에 많은 눈이 내렸고, 8월 1일에 하늘과 땅이 어두웠다.”¹³⁾

12) 王之陵在吐含岳西洞鵠寺(今崇福寺) 有崔致遠撰碑(『三國遺事』 2, 紀異 2, 元聖大王條)

13) 第四十 哀莊王末年戊子 八月十五日 有雪 第四十日 憲德王元和三年 戊戌 三月十四日 大雪

여기서 9세기 전반에 세 차례 이른 눈이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눈이 내렸다는 것은 異變이므로 이를 의심하는 견해가 있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삼국사기』 애장왕조와 헌덕왕조에도 눈이 내렸다는 기사가 있다. 이들 외에도 『삼국사기』에는 가을의 강설 기사가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삼국유사』의 무설 기록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당시의 사실을 기록에 남긴 것이며, 『삼국사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삼국유사』가 기록으로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조한 기후는 가뭄의 원인이 되었으며, 신라의 농업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가뭄과 홍수와 같은 이상 기후현상에 대한 기사는 9세기 전반에 그치지 않고 후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문성왕 15년(853) 6월에 홍수가 나고, 8월에 서남주군에 누리떼가 나타났다.¹⁴⁾

헌안왕 2년(858) 4월에 서리가 내리고, 오월에서 칠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¹⁵⁾

경문왕 10년(870) 4월 경도에 지진이 있었으며, 오월 왕비가 돌아가시고, 칠월에 홍수가 있었으며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았으며, 나라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다.¹⁶⁾

12년(872) 4월에 경사에 지진이 있었으며, 팔월에 국내주군에 누리떼가 곡식에 피해를 주었다.¹⁷⁾

(一本作 丙寅誤矣 元和盡十五 無丙寅) 第四十六 文聖王己未 五月十九日 大雪 八月 一日 天地晦暗(『三國遺事』 卷 2 早雪條)

14) 十五年 夏六月 大水 秋八月 西南州郡 蝗(『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文聖王 十五年條)

15) 二年 夏四月 降霜, 自五月 至秋七月 不雨(『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憲安王 二年條)

16) 十年 夏四月 京都地震 五月 王妃卒 秋七月 大水 冬 無雪 國人多疫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景文王 十年條)

진성왕 원년(887) 즉위하니 이름은 덕만이며, 헌강왕의 여동생이다. 대사면령을 내리고, 모든 주군에 일년간 조세를 면제해주고, 황룡사에서 백고좌회를 열고, 왕이 친히 행하여 법문을 들었다.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았다.

2년(888) 5월에 가뭄이 있었다.

3년(889) 국내 여러 주군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아 국고가 고갈되어 용도가 궁핍하므로, 왕이 사자를 파견하여 이를 독촉하니 이로 인해 도처에 도적이 별떼와 같이 일어났다.¹⁸⁾

홍수와 가뭄뿐만 아니라 누리떼가 나타나고, 눈이 오지 않는 겨울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더구나 지진까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9세기 전반에서 후반에 걸친 장기 지속적인 이상 기후현상으로 인한 흉년과 기근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방사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휼 정책을 시행하였다. 진성여왕이 즉위한 해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고 모든 주군에 조세를 1년간 면제해주었다.

여왕이 즉위하여 장기간 지속된 가뭄과 기근으로 곤경에 처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백고좌회를 열고 친히 동참하였다. 그러나 그해에 눈이 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 겨울 가뭄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동왕 2년 5월조를 보면 가뭄이 들었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결국 계속적인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동왕 3년 국내 모든 州郡에서 貢賦를 보내지 않아 재정이 고갈되고, 貢賦를 독촉하는 사신을 파견하자 도적

17) 十二年 夏四月 京師地震 秋八月 國內州郡 蝗害穀(『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景文王 十二年條)

18) 眞聖王立 諱德曼 憲康王之女弟也 大赦 復諸州郡一年租稅 設百高座 皇龍寺 親幸聽法 冬無雪. 二年 夏五月 旱, 三年 國內州郡 不輸貢賦 府庫虛竭 國用窮乏 王發使督促 由是 所在盜賊蜂起(『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眞聖女王條.)

이 봉기하고, 농민항쟁으로 비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은 10세기 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덕왕 2년(913) 4월에 서리가 내리고, 지진이 있었다.¹⁹⁾
5년(916) 10월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우뢰와 같았다.²⁰⁾

경애왕 5년(918) 4월에 경도에 태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으며, 8월에 누리페와 가뭄이 있었다.²¹⁾

가뭄과 태풍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상 기후 현상이 1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 興德王 鸚鵡조는 왕이 짝 잃은 앵무를 보며 자기의 신세를 투사하여 노래를 지었다는 내용이며, 神武大王 閻長 弓巴조는 신무왕이 장보고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입비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염장을 시켜 장보고를 제거하였다는 이야기이다. 景文大王조는 膺廉이 國仙으로서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과 왕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설화 내용, 그리고 화랑이 왕을 위하여 노래를 지어 올린 이야기이다. 處容郎 望海寺조는 憲康王대의 처용설화와 포석정에서 남산신이 나타나 춤을 추며 나라가 망할 것을 경고하였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상서가 나타났다고 여겨 탐락이 더욱 심하여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경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眞聖女王대 居陀知조는 王巨人의 설

19) 二年 夏四月 隕霜 地震(『三國史記』 12, 新羅本紀 12, 神德王 二年條)

20) 五年 冬十月 地震聲如雷(『三國史記』 12, 新羅本紀 12, 神德王 五年條)

21) 五年 夏四月 京都 大風拔樹 秋八月 蝗旱(『三國史記』 12, 新羅本紀 12, 景明王 五年條)

화와 居陀知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孝恭王조에는 神德王대의 이상 기후현상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제 5대 효공왕 때인 광화 12년 임신(912)에 봉성사의 외문에 동서쪽 21칸에 까치가 집을 지었다. 또 신덕왕 즉위4년 을해(915)에 영묘사 안 행랑에 까치집이 34개나 되고, 까마귀집이 140개나 되었다. 또 3월에는 서리가 두 번 이나 내리고, 6월에는 참포의 물이 바닷물과 사흘 동안이나 싸웠다”²²⁾

효공왕대와 신덕왕대에 까치와 까마귀집이 봉성사와 영묘사에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상서로운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신덕왕대에 3월에 서리가 두 번이나 내리고, 강물과 바닷물이 3일간 싸웠다는 이야기는 이상 기후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닷물이 넘치는 해일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기상 이변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인다.

景明王조도 사천왕사와 황룡사에서 변괴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景哀王조는 황룡사에서 백고 좌회를 열어 불공을 드렸으며, 이것이 禪과 教를 함께 설한 시초였다는 주요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金傳大王조는 후삼국 시기 견훤의 침입과 왕건의 도움을 상대적으로 기술하여 왕건을 돋보이게 하고, 고려로 귀부한 것을 은연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2) 第五十二孝恭王 光化壬申 奉聖寺外門 東西二十一間 鵲巢 又神德王 卽位四年乙亥 靈廟寺內行廊 鵲巢三十四 烏巢百四十 又三月 再降霜 六月 槩浦水與海水相關三日(『三國遺事』2, 紀異 2, 孝恭王條)

『삼국유사』 기이편의 하대에 해당하는 시기의 내용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왕들에게 상서롭지 못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다. 또한 이른 눈이 왔다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해일이 일어났다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을 신라 하대의 특징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앞장에서 『삼국사기』 하대의 천변지이 현상을 하대의 특징으로 살펴본 것과 공통적인 점이라 하겠다.

IV. 『桂苑筆耕集』에 보이는 唐과 新羅의 사회상

여기서는 신라 하대를 살았던 최치원의 저술을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唐代에는 외국인이 唐朝를 방문 하였으나 외국인이 남긴 문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계원필경집』 저자 최치원이 淮南節度使의 館驛巡官이라는 당나라의 관리로서 그 직무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어 唐朝 통치의 구체적 실상을 전하고 있다.²³⁾

『계원필경집』의 저자인 최치원의 字는 孤雲, 海雲이며, 경주 沙梁部 사람이다. 기록에 따라서는 그를 本彼部 사람이라고 서술하기도 하는데, 사랑부나 본피부 모두 경주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그는 당시 신라의 왕경이었던 경주 사람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최치원은 868년에 12세의 어린 나이로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으며, 공부한지 6년 만인 874년 9월에 18세의 나이로 賓貢進士에 급제하였다.²⁴⁾

23) 최영재, 2011, 「『桂苑筆耕集』과 唐後期 進奏院의 기능」 『진단학보』 112, 진단학회, p. 230.

이후 약 2년 간 洛陽에서 文筆에 종사하다가, 20세가 되던 876년에 江南道 宣州 溧水縣의 縣尉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말단 관직의 안일한 편안함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관직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博學宏辭科의 응시를 결심하고, 877년 겨울에 율수 현위의 직책을 사임하고 입산 수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축해 두었던 녹봉이 바닥나고 글 읽을 양식이 떨어지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다. 더구나 黃巢의 난으로 인해 과거시험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박학굉사과의 준비를 중도에 포기하고, 淮南節度使 高駢에게 의탁하여 새로운 출사길을 도모하였다. 고변에게 등용된 그는 從事官으로 활약하며 약 4년 간 고변의 공문서 작성 사무를 도맡아 무려 1만 여의 公文書와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시기 그가 작성한 글들은 훗날 자신에 의해 선별과정을 거쳐 20권의 책으로 엮여지는데, 이 책이 바로 『계원필경집』이다. 그 중에는 <檄黃巢書>도 포함되어 있다.²⁵⁾ 당시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황소²⁶⁾가 이 격문을 읽다가 혼비백산하여 자신도 모르게 평상에서 떨어졌다는 일화로 유명한데, 그는 이로써 당 전역에 문명을 떨치기도 하였다.

24) "...至年十二 將隨海舶入唐學 (中略) 乾符元年甲子 禮部侍郎裴瓚下一舉及第..." (『三國史記』 46, 列傳 6, 崔致遠條).

25) 『桂苑筆耕集』 권 11, 檄黃巢書.

26) 황소(黃巢)는 875년 소금 밀매상이었던 왕선지가 반란을 일으키자 무리를 모아 호응하였다. 878년에 왕선지가 죽자 그가 이끌었던 반군을 통솔하면서 광주와 악주 등을 함락하고, 880년에는 요주와 신주를 장악하였다. 장안에 입성하여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나라 이름을 대제라 하고 연호를 금통이라 하였다. 884년 장안에서 철수한 후 여러 차례 패하다가 885년 태산 낭호곡에서 자결하였다.

884년 고변이 도교에 심취하여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신라에서 사신이 와있는 상황에서 최치원은 신라로 귀국할 뜻을 밝혔고, 이에 愍宗은 그에게 사신의 임무를 주어 詔書를 가지고 신라에 돌아가도록 하였다. 마침내 그는 885년 3월, 29세의 나이로 17년 만에 고향인 신라 땅을 다시 밟게 되었다. 귀국한 그는 곧바로 신라 조정에서 侍讀 兼 翰林學士 守兵部侍郎 知瑞書監에 임명되었다. 다음해에 唐에서 종사관으로 일하면서 지은 공문서와 사적인 문서와 시문들 중에서 취사선택하여 『계원필경집』을 엮어 왕에게 바치었다.²⁷⁾

이 문집은 한문학적으로는 물론 한국 문학의 효시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 국문학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²⁸⁾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20세기 민족주의시대에는 별로 주목되지 않다가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계원필경집』을 역사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2011년 진단학회에서 고전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다. 이 문집이 그간 한국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계원필경집』에 수록된 글들이 대부분 회남절도사 고변의 종사관으로서 대필한 것이어서 당시 중국의 상황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므로 한국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계원필경집』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나라의 중앙과 지방 제도, 그리고 그 운영방식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당과 신라와의 관계, 나아가 최치원의 사상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²⁹⁾

27) 최광식 역주, 2016, 『孤雲崔致遠先生文集』 上 해제, 고운국제교류사업회.

28) 金重烈, 1983, 『崔致遠 文學研究』, 고려대학교. 이것이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29) 최광식 역주, 2016, 『孤雲崔致遠先生文集』 上 머리말, 고운국제교류사업회.

권 10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라 探候使 朴仁範³⁰)에게 보낸 별지로 이는 고변이 당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의 인물에게 보낸 유일한 것이다. 박인범은 신라에서 건너 온 사신으로 그가 입당했을 당시에는 회중이 장안을 떠나 成都에 피해있던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인범은 入朝를 하는 것에 대해 고변과 상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忽奉公狀’란 표현³¹)에서도 알 수 있는데, 公狀은 관직명을 적은 공식 문서로서 박인범이 고변에게 먼저 공식적인 글을 보냈음이 확인된다. 회남 지역은 견당사가 입당하기 위해 거쳐 가야했던 곳이었으므로 이곳에 머무르면서 당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것이다. 고변은 최치원으로 하여금 박인범의 공식 문서에 답서를 보내면서 별지를 첨부하여 입조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신라 사신의 입당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를 통해 당나라와 신라의 교류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황소의 난으로 길이 막혀서 신라로 귀국하려는 박인범에게 당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렵더라도 당나라 황제에게 입조하라고 권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황소의 봉기는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는데 특히 회중이 수도인 장안을 버리고 몽진할 만큼 그 세력이 강성했다. 廣明 원년(880) 낙양을 함락시킨 황소는 비어있는 장안에 진입하여 황제로 즉위하였다.³²) 바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이

업회.

30) 신라 헌강왕대의 문신으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귀국후 한림학사, 수예부시랑 등을 역임하였으며, 찬문 2편과 칠연유시 10수가 전하고 있다.

31) “忽奉公狀 備睹忠誠 慰愜欽依 但增衷抱...”(『桂苑筆耕集』 卷 10, 新羅探候使朴仁範員外條).

32) 『舊唐書』 卷19, 本紀19 僖宗 廣明 元年(880) 12月

듬해인 中和 원년(881)에 <격황소서>가 작성되어 발표된 것이다.

권 16에의 2수의 疏는 太尉, 즉 고변이 따로 언급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疏에서 보시를 요청하는 주체가 최치원임을 알 수 있다.³³⁾

“ 상고하건대. 대저 종교는 셋으로 나뉘고, 불교가 그 중 하나입니다. 그 묘한 뜻은 가만히 신묘한 조화를 도와주고, 그 뜻 깊은 말은 널리 중생들을 깨우치며, 선을 권하는 문을 활짝 열고, 혼미함에 집착하는 그물을 풀어 해칩니다.”³⁴⁾

이 글을 통해 최치원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도관의 중수를 위해서도 모금을 하였는데 “불교에서는 희사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희사하니, 기꺼이 보시함을 알 수 있고, 도교에서는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하였으니, 경솔하게 승낙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³⁵⁾라고 하여, 도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유학자인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불교 사찰인 대운사와 도교사원인 도관의 중수를 위한 모금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로 귀국 이전에 이미 유교와 불교 및 도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유불선 융합의 사상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로 귀국한 뒤에 <鸞郎碑序>를 찬술하여 풍류도를 언급하면서 유불선 융합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미

33) 『계원필경집』의 권1에서 권16까지는 대체로 고변이 글을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다. 단, 권16의 기(記) 2수, 소(疏) 2수의 경우, 최치원 자신이 작성하였음을 적극 드러내고 있다.(장일규, 2011, 『『계원필경집』의 편찬과 사료적 가치』, 『진단학보』112, p. 239)

34) “詳夫教列爲三 佛居其一 其如妙旨則暗禪玄化 微言則廣諭凡流 開張勸善之門 解摘執迷之網”(『桂苑筆耕集』 16, 求火修大雲寺疏)

35) 최광식, 2016, 앞의 책, p. 646.

유불선 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따라서 유불선 융합이 <난랑비서>를 지은 시점에 최치원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진성여왕대의 농민반란 등의 국난을 보며 화랑과 국선이 이끌어왔던 신라의 중흥을 꿈꾸고, 그 지도이념인 풍류도의 부활을 바라는 마음으로 삼교를 융합하고 대중들을 교화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⁶⁾

한편 권 20에 수록된 글들은 9세기 신라와 당의 사신이 사용한 海路를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당 황제의 사신 자격으로 귀국길에 오른 최치원은 신라로 돌아가는 김인규가 이끄는 신라 사신단과 함께 884년 10월 경 揚州에서 출발하여 長江을 따라 대운하를 통해 북상하였다. 山陽과 楚州를 거쳐 淮河를 따라 황해로 진입하는 항로를 택한 것이다. 이후 그의 일행은 산동반도 일대에서 풍랑을 만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다가 결국 해를 넘겨 이듬해인 885년 정월에 귀국하게 되었다. 이 자료를 통해 당시 당나라와 신라 사이를 왕래하는 해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겨울에 신라로 귀국할 수 없을 만큼 큰 계절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초겨울에 東牟³⁷⁾의 동쪽에 이르러 큰 바다의 흐름은 아직 먼데 겨울은 극에 달하려 하는 때에, 물결의 형세가 뺨뺨이 모여 鷓鴣³⁸⁾가 배를 띄우기 어려웠고 바람이 크게 일어 메아리치니 고니도 새장을 벗어나길 두려워했습니다. 마침내 나무배를 정박시켜 斷蓬³⁹⁾을 편안케 했습니다.”⁴⁰⁾

36) 최광식, 2016, 『新羅의 花郎徒와 風流道』 『史叢』 87, 高麗大學校 歷史研究所, p. 24.

37) 동모(東牟): 현 산동성 용구시이다.

38) 익조(鷓鴣): 바람에 강한 물새로, 뱃머리에 새기거나 그리는 경우가 많다.

39) 단봉(斷蓬): 뿌리 없이 날리는 쭉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를 비유

최치원이 신라 사신 김인규와 함께 겨울 계절풍을 잠재우기 위해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지만 결국 이상 기후 현상인 겨울 계절풍이 그치지 않아 다음해 봄이 되어서야 신라로 귀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국의 산둥반도와 한반도 사이에 겨울 계절풍이 몇 달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V. 귀국후 찬술한 자료에 나타난 下代の 사회상

최치원은 귀국 후 왕명을 받아 <智證大師寂照塔碑銘>, <大崇福寺碑銘>, <眞鑑禪師大空塔碑銘>, <朗慧和尚白月寶光塔碑銘> 등 여러 글들을 찬술하였다. 이밖에도 大山郡(전라북도 정읍)과 富城郡(충청남도 서산), 天嶺郡(경상남도 함양)의 太守로 부임하여 지방관으로 활약하기도 하였고, 賀正使로 선발되어 893년, 재차 入唐하기도 하였다. 894년에는 眞聖女王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한 사실도 전한다.⁴¹⁾

진성여왕이 왕위를 선위한 이후 정계에서 은퇴한 그는 세상사를 등진 채 海印寺에 들어가 『法藏和尚傳』(904년) 등을 찬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미 지병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아서 908년 52세의 나이로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登樓記>를 지은 것을 끝으로 더 이상의 저술활동도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

한다.

40) 去歲初冬 及東牟東 屬以滄流尙遠 玄律將窮 浪形旬鬪而鷁難浮艦 風響羸蠃而鵠恐辭籠 遂臈剝木 聊安斷蓬(『桂苑筆耕集』 20, 祭嶠山神文)

41)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眞聖王 8年條.

즈음 저술활동을 그만두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저술로는 시문집인 『桂苑筆耕集』 이외에 『今體詩』, 『五言七言今體詩』, 『雜詩賦』, 『中山覆篋集』 등이 있었고, 史書로는 『帝王年代曆』이 있었다. 불교 관련되는 저술로 『浮石尊者傳』, 『法藏和尚傳』, 『釋利貞傳』 등이 있었다. 현전하는 것은 『계원필경집』, 『법장화상전』, 『四山碑銘』 뿐이고, 그 외 『東文選』 등에 시문 약간, 寺記 등에 記, 願文, 讚 등이 전한다.⁴²⁾

이중에 최치원이 귀국하여 찬술한 당대 자료인 <海印寺妙吉祥塔記>를 보면 신라에서 거듭되는 재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중국과 유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나라 제19대 황제 昭宗이 중흥의 정치를 펼 즈음에 전쟁과 흉년의 두 재앙이 西國(당나라)에서는 멈추고 東國(신라)으로 건너왔다.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굶어 죽거나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처럼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⁴³⁾

이 자료를 보면 당나라 19대 왕인 昭宗(888~904)이 중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쟁과 흉년이 그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두 재앙이 당나라에서 그치고 동쪽으로 와서 신라에 와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당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흉년이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쟁이 지속되었는데 소종대에 와서 흉년이 그치고 그에 따라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42) 최광식 역주, 2016, 『孤雲崔致遠先生文集』 上 해제, 고운국제교류사업회.

43) “唐十九帝 中興之際 兵凶二災 西歎東來 惡中惡者 無處無也 原野星排”(〈海印寺妙吉祥塔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신라에 흉년이 들고 이로 인해 전쟁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흉년이 들게 된 이유를 보면 가뭄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으로 보인다.⁴⁴⁾

8~9세기에 천변재이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가뭄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뭄의 발생은 벼농사를 어렵게 하였으며, 결국 농업생산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식량의 감소 및 기근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흉년으로 인해 초적이 발생하고, 결국 농민반란으로 확대되게 된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가뭄이 집중된 8~9세기의 한반도가 유난히 심했던 건조기였다고 파악한 연구들이 자연과학 및 기상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제기되어 왔다. 한 연구에서는 『三國史記』 기록을 토대로 고대 한반도의 기상을 복원하여 3세기부터 5세기 중반까지의 기간과 8~9세기의 기간을 한반도에서 가장 건조한 시기로 규명하고, 그로 인해 기근이 성행했을 것으로 분석한 경우도 있다.⁴⁵⁾ 최근에는 역사학계에서도 9세기 신라의 사회변동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러한 가뭄과 기근이 우연이나 사회구조의 문제가 아닌,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도 연속되는 가뭄이 벌어져 기근이 있었고, 이 현상은 당대 동

	기근	가뭄	역병	홍수	눈	서리	우박	蟲害
6세기	0	2	0	1	1	0	0	0
7세기	4	3	0	1	2	0	1	0
8세기	5	14	3	4	5	4	6	3
9세기	7	11	3	5	5	1	2	3
10세기	0	1	0	0	0	4	1	1

44) <표 1> 『삼국사기』 天變災異 기사

45) 김연옥, 1998, 『기후 변화』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101, 민음사, pp. 140~147.

아시아의 전반적인 기상 이변이었으며, 9세기 신라 또한 이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고 하였다.⁴⁶⁾

한편 감숙성의 万象洞 동굴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중국에서 여름 계절풍이 특히 약하던 시기를 9세기 말 10세기 초, 14세기 말, 17세기 전후로 추정하였는데, 이 시기는 각각 당나라와 원나라, 명나라가 쇠망기로 접어드는 시기와 일치한다.⁴⁷⁾ 중국의 여타 지역에서도 9세기 무렵 건조 기후가 확인된다고 하고, 당나라의 쇠망과 기후 변화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 건조 기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으며, 당나라의 멸망 이후 北宋이 성립되기까지의 혼란기가 장기간 유지되었던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⁴⁸⁾

중국 중서부의 여름 계절풍 현황⁴⁹⁾의 자료를 보면 9세기 경 신라에서 발생한 가뭄은 장기 지속적인 기후 변화가 원인이었으며, 그것도 동북아시아 전체에 걸친 공통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9세기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가뭄과 홍수 및 눈이 오지 않은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9세기 중국의 기후는 가뭄의 원인이 된 여름 계절풍의 약화만이 아니라, 겨울 계절풍의 강화 또한

46) 하일식, 2010, 『신라 말 고려초의 지방사회와 지방세력-향촌 지배 세력의 연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중세사연구』 pp. 55~56.

47)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원용하여 원나라와 명나라의 역사를 연구한 저서가 출간된 바가 있다. (티모시 브룩 지음, 조영현 옮김, 2014, 『하버드 중국사 원.명-군경에 빠진 제국』, 너머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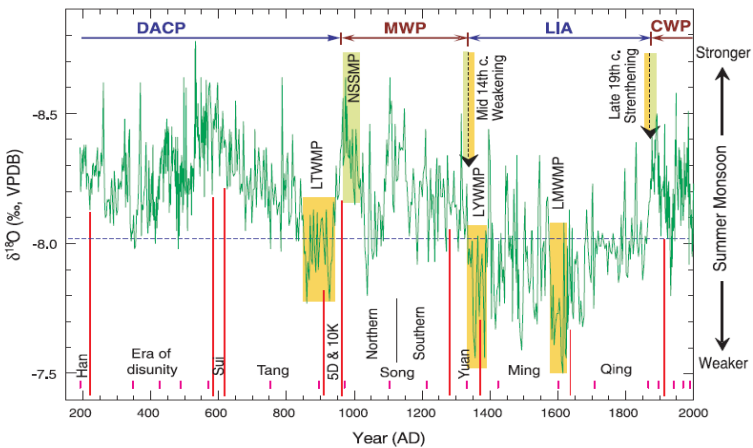
48) Pingzhong Zhang et al, 2008, "A Test of Climate, Sun, and Culture Relationships from an 1810-Year Chinese Cave Record", *Science*, 322, pp. 940.

49) Pingzhong Zhang et al, 2008, *Ibid.*, pp. 941. 재인용

일어났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⁵⁰⁾ 실제로 최치원이 884년 겨울 귀국하고자 할 때 겨울 계절풍이 불어서 귀국을 못하고 다음해 봄에야 귀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겨울 계절풍은 흑한의 지속과 한랭건조의 기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삼국유사』 등의 사료에서 나타나는 9세기의 降雪 기사들은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건조한 기후는 가뭄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당시 신라의 농업 생산력에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최치원이 지은 진성여왕의 <讓位表>를 보면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백성들이 신열이 나도 물로 씻어줄 수 없고, 물에 빠졌어도 건져줄 수 없습니다. 모든 帑廩은 한결같이 비어 있고, 나무로 통하는 길은 사방으로 막혀있는데, 때때는 8월이 되어도 오지 않고, 갈 길은 오히려 九天보다도 멀기만 하여 진작 梯山航海 하여 천자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어찌하다가 신라에 도착들이 횡행하다 보니 자주 왕래하였던 사행이 오랫동안 막혔사

<표 2> 중국 중서부의 여름 계절풍 현황



50) G. Yancheva et al., 2007, Ibid., pp. 75.

읍니다.”⁵¹⁾

국가의 재정이 파탄이 났으며, 도적들이 횡행하여 모든 길이 막혀 국가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구나 당나라로 가는 사행길마저 막혀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위기감에서 왕위를 넘기게 된 것을 당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天災에 있다는 것을 <謝嗣位表>에서 적시하고 있다.

“올며 청하기를 天災가 행해지는 것은 땅의 본분으로 면하기 어려운 것 이오라, 이를 자신의 허물로 삼음은 마땅한 일이 아니읍니다. 황제의 어명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王爵을 늦지 않사오리라고 하였사읍니다.”⁵²⁾

이 글은 진성여왕의 양위를 받은 孝恭王이 당나라 황제의 冊文에 감사하는 글로 최치원이 지었는데 효공왕은 흉년과 그에 따른 반란의 원인을 天災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가뭄과 조설 등 이상 기후현상이 흉년을 가져와 신라 하대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당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성여왕은 즉위의례의 하나로 1년간의 조세를 면제하여 백성들을 위무하였다. 그러나 다음해에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자 동왕 3년 재정이 고갈되고 貢賦를 독촉하자 강력한 저항에 부

51) “熱無以濯 溺未能援 帑廩一空 津途四塞 倭不來於八月 路猶復於九天 不獲早託梯航 上聞旒宸 (중략) 奈蠻夷寇多 久阻遄征之使 禮實乖闕 情莫遑寧” (최영성 역주, 2016, 『孤雲崔致遠先生文集』 下 讓位表, 고운국제교류사업회.)

52) “而泣請曰 天災所行 地分難免 以斯自咎 未見其宜 受帝命爲期 讓王爵非晚” (최영성 역주, 2016, 『孤雲崔致遠先生文集』 下 謝嗣位表, 고운국제교류사업회.)

뒤틀려 농민반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 지방의 호족 세력이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진성여왕은 유교적 왕도정치에 기본을 보이고, 황룡사 백고좌회에 친행하고, 『삼대목』을 편찬하는 등 불국토이념을 구현하려고 하였으나 동아시아 지역의 장기 지속적인 이상 기후 현상과 하대의 정치적 혼란의 상호 영향에 의하여 결국 양위를 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VI. 맺음말

종래 신라 下代에 대한 연구는 대개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골품제의 해이를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정치사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지방에서 새로이 성장하는 호족세력에 대해 주목을 하였다. 한편 신라 멸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진성여왕의 貢賦 독촉사 파건을 거론하였다. 하대 정치사연구는 기본적으로 중대=전제왕권기=전성기, 하대=귀족연립 정치=쇠퇴기라는 이분법적이고 단절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⁵³⁾

그러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하여 신라 하대에 가뭄과 조설 및 해일 등 기상 이변 현상이 장기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계원필경집』등을 비롯한 최치원이 찬술한 자료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하여 당나라에서도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 흉년과 기근으로 황소의 난과 같은 농민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이상 기후 현상은 한반도에도 미쳐 흉년

53) 권영오, 2009, 『신라 하대 정치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신라사학보』 17, 신라사학회.

과 전쟁이 그치지 않았으며, 왕들의 구휼정책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수 없어서 진성여왕은 결국 왕위를 이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 시기는 신라만이 아니라 당나라 등 동북아시아에 장기 지속적인 이상 기후 현상이 사회전반에 끼친 상호 영향이 지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라의 下代에 대한 연구가 신라의 왕위 계승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환경변화 문제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동아시아사적 관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 성과를 비교하는 비교사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투고일 : 2월 21일 논문게재확정일 : 2월 23일]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 『三國史記』 『三國遺事』 『桂苑筆耕集』 『舊唐書』

2. 단행본 및 저서

- Pingzhong Zhang et al, 2008, "A Test of Climate, Sun, and Culture Relationships from an 1810-Year Chinese Cave Record", Science, 322
- 김연옥, 1998, 『기후 변화』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101, 민음사
- 최광식 역주, 2016, 『孤雲崔致遠先生文集』 上 해제, 고운국 제교류사업회
- 티모시 브룩 지음, 조영현 옮김, 2014, 『하버드 중국사 원. 명-곤경에 빠진 제국』, 너머북스.

3. 논문류

- 권영오, 2009, 『신라 하대 정치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신라사학보』 17, 신라사학회
- 金重烈, 1983, 『崔致遠 文學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 이기백, 1957, 『신라 혜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사회과학』 2,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최광식, 2016, 「新羅의 花郎徒와 風流道」, 『史叢』 87, 高麗大學校 歷史研究所
- 최영재, 2011, 「『桂苑筆耕集』과 唐後期 進奏院의 기능」, 『진단학보』 112, 진단학회
- 하일식, 2010, 「신라 말 고려초의 지방사회와 지방세력-향촌 지배세력의 연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중세사연구』